

과거와 현재의 공존 '南京'을 걷다

상해흥사단, 특별한 문화기행 '길 위의 인문학'



있던 장소 중 하나이다. 도산 선생이 1924년 난징에서 개교한 동명학원은 한국 청년들이 민족의식을 깨우치며 자주독립의 꿈을 키웠던 곳으로 민족부흥의 강렬한 의지와 희망을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였다. 마침 둘째 날인 11월 9일이 도산 선생의 탄신 146주년이라 참가자들은 더욱 그날의 위대한 여정을 공감할 수 있었다. 특히 상해뿐만 아니라 난징, 항주 등 화동 지역에서 모인 동명아카데미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100년의 약속을 2024년 동명아카데미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상해흥사단이 주최하고 HERO역사연구회가 후원하는 문화기행 '길 위의 인문학'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장쑤성 난징(南京)에서 진행됐다. 네 번째를 맞는 이번 여정에서는 처음으로 우시(无锡)에서 참가한 교민들과 우시백범스카우트 대원들 그리고 100년 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약속을 이어 올해 다시 개교한 동명아카데미 학생들이 동행하여 행사에 더 큰 의미를 보태주었다.

이번 난징기행은 초·중·고·대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의 참가자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가슴 아픈 흔적과 기억을 직접 마주하며 공부하였고, 대한민국 독립전쟁의 생생한 기록들을 살펴봄에 민족 정체성과 자부심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첫날 저녁 방문한 부자묘(夫子廟)는 난징에서 공자를 모신 사당으로 맞은편에 과거 시험장인 강남공원(江南貢院)이 위치하고 있다. 그 옆에 흐르는 진화하(秦淮河)의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회청교(淮清橋)가 보인다. 백범 김구 선생의 은둔지였던 회청교는 난징에 머물며 독립운동의 대전환점을 마련하고자 애썼던 백범 선생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의미 깊은 장소다. 다리 위에서 그가 느꼈을 고뇌와 결단을 되새기며 참가자들은 선열들의 용기와 헌신을 다시 한번 가슴 속에 깊이 새겼다.

둘째 날 방문한 사전만(丝转湾)의 천주당은 100년 전 동명학원(东明学院)이 터를 잡

고 상해뿐만 아니라 난징, 항주 등 화동 지역에서 모인 동명아카데미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100년의 약속을 2024년 동명아카데미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명양가(鸣羊街)의 우원(愚園)은 정원 주인의 성을 따 호가화원(胡家花园)이라고도 불리는데 약산 김원봉 선생을 비롯한 의열단 단원들이 난징에서 거주했던 곳이다. 백범과 도산의 흔적에 이어 약산의 흔적을 발견한 참가자들은 이곳 난징에 깃든 우리의 독립운동사에 더욱 숙연해지며 잊힌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었다.

이번 기행은 보다 다채로운 문화, 역사체험을 위해 난징대학살기념관, 이제항(利济港) 위안소 유적 진열관, 육조(六朝) 박물관, 중산릉(中山陵), 조선혁명군사정치학교가 있었던 천녕사(天宁寺) 등도 함께 돌아보았다.

'길 위의 인문학' 문화기행을 통해 참가자들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와 그 속에서 불굴의 의지로 싸운 선열들의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상해흥사단은 도산탄신일, 의열단 창설일 등 뜻 깊은 날에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한국 청년과 교민들에게 잊지 못할 배움과 감동을 나누며,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고 새로운 세대를 이어가는 가교가 되겠다는 다짐을 함께 했다.

< shanghaibang.com >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6

차가운 열정



2024년 10월, 중국 국경절 7일 동안 고향 방문, 여행으로 이동한 인구는 20억 명이다. 국경절 이동 인구는 2019년도 수준으로 회복

했지만 1인당 소비금액은 줄었다. 해외여행객 숫자와 소비금액은 2019년과 비교해 늘었다. (중국문화여유국 자료) 전 세계 인구 1/4에 해당하는 인구가 움직이는 중국 국경절 기간에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중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이다. 7일 동안 밀린 공부와 과외를 시키기 위해서이다. 공식 과외는 금지되었지만 개인별로 하는 과외는 여전히 성업 중이다. 우리나라 국영수 같은 어문, 수학은 1시간에 150~200위안, 예체능은 200~250위안 수준이다. 국영수만 과외 할까? 서법, 체육, 무용, 악기 같은 예체능까지 합치면 사교육비로 한 달에 만 위안 쓰는 것이 평범한 집안의 일상 지출이다. 올 초 잠시 성인취미발레 수업을 들었는데 발레학원에서 여름방학 때 영국 런던으로 발레캠프 간다고 학생들에게 빨리 신청하라고 하는 것을 봤다. 발레를 취미로 배우는 초등학교 생들이 방학 때 해외로 발레캠프 가는 게 별 일 아닌 상하이이다.

9월, 상하이시는 외식, 숙박, 영화, 스포츠 4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5억 위안 상당의 소비쿠폰을 뿌렸다. 나 같은 외국인은 구경도 못했지만... 지난 주말에 창닝구(长宁区) 룡즈명(龙之梦) 쇼핑몰에 갔는데 외식 나온 사람들 많아 식당마다 대기줄이 길었다. 소비쿠폰이 준 반짝 효과였는지, 원래 외식에 집신인 상하이러서 그랬는지 모른다.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으로 자동차, 가

전제품, 주택, 인테리어, 산업기계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트레이드인 Trade-in을 장려하며 40억 위안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 국경절 전에 잇단 부양책 발표로 코로나 이후 내내 바닥에 달라붙어 있던 중국 주가를 일으켜 세우기도 했다.

상하이시는 11월,12월에도 숙박과 스포츠 경기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소비쿠폰을 발행할 예정이다. 10월 21일에는 주택대출 기준금리가 되는 5년 MLF를 25bp 낮추었다. 중국 모기지론은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이라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적지 않은데 금리를 낮춰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겠다는 거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쿠폰 준다,

기존에 쓰던 물건을 주고 새 물건 사면 보조금 준다, 대출금리 낮춰준다. 매일매일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만 좀처럼 소비는 살아나지 않는다. LVMH 아르노 회장을 세계 1위 부자에 올려줬던 중국 명품 소비 시장도 주춤하다. 물론 주춤한 중국 명품 소비 시장 규모도 여전히 세계 1위이다.

중국은행에 쌓인 예금 잔액은 300 만억 위안(55,500조 원 가량) 이고 아무리 금리를 낮추어도 돈은 시중으로 풀리지 않는다. 지금 중국 정기예금 금리는 1년 1.1%, 5년 1.55~1.6% 수준이다. 이렇게 낮은 금리에도 사람들은 은행에 돈 꼭꼭 넣어두고 꺼내 쓰지 않는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불확실성 때문에 돈이 있어도 쓰지 않는다. 중국은 내수로도 먹고살 수 있는 나라인데 그 내수가 사그라들고 있다. 지지부진한 내수시장에서도 자녀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줄지 않는다. 소비에 대한 열정은 차가운데 사교육에 들어가는 열정만 더욱 뜨거워져가는 차가운 열정의 상하이이다.

-blog.naver.com/na173515
-brunch.co.kr/magazine/apurescent



東華大學 中國·上海
중국 교육부 직속 75개소 중점대학교



ACCREDITED
Eaquals
Excellence in Language Education

본교 중국어 프로그램은
중국 대학교들 중 최초로 어학연수 품질 평가인증조직
EAQUALS(유럽 비영리 국제조직)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접수비 - 무료

*쿠폰은 접수시 보여주세!

어학연수	학습기간	개설반급	수업시간과 비용	신청마감	특징
종합 중국어 프로그램	2025.3.3 ~2025.7.4 (18주)	입문~고급 총9개의 레벨	월~금 9:00~12:15 10800위안	2024년 12월31일까지 온라인 신청 제출	<p>종합 언어 능력 향상시킬 최선의 선택으로 중국어의 일상 생활활용과 HSK 시험준비에 모두 도움 될 수 있음.</p>  <p><small>*종합 중국어 코스</small></p>

중국어 학부 과정 (3월 입학)

커리큘럼 특색: 중국어 기초수업,
문화 교양 수업, 비즈니스 전공 수업 등

융통성 있는 편입학 제도:
[HSK4급 210점 이상 소지할 경우, 3년 이내 졸업가능]

동화대학교 국제문화교류학원 유학생 입학처
주소 上海市延安西路1882号
근무시간 월-금 08:30~17:00
전화 021 62378595 / 62379115
사이트 http://korean.dhu.edu.cn



지하철 3, 4호선 延安西路
역에서 도보로 5분 소요



위챗공식계정